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과일 세트 등 6000t 할인 판매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행사
과일 세트 3만 상자 등 포함 할인
실속형 선물세트·성수품, 10% ↓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주력”**

소비자들이 올해 설에는 온라인도매 시장을 통해 선물세트와 성수품 등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자는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해외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000톤(t) 규모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성수기에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의 절감을 도모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특화 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 등이다.

우선 행사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 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스

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아울러, 사과·무·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

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거래의 61%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물류 효율성도 높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유통비용이 7.4% 절감되고 소비자 후생이 3.9%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이 없다는 장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스라엘·일본과 산업기술 혁신 가속”

산업부 첨단기술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3일 제경희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벨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이 화상으로 개최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올해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달러를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장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미국 의료기기 수출 규제 극복 돕는다

KT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심사 협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미국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제3차 심사기관인 빈스탁벤처스(BEANSTOCK Ventures)의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사나몬테 레이 대표와 의료기기 시판전 신고(FDA 510(K))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FDA 510(k)’란 의료기기 제조자가 시판 9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로 시판 전 신고(PMN)로도 불린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보다 쉽게 FDA 510(k) 기술문서 심사 및 시험, FDA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KTR의 기술문서

사전검토로 인허가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협약기관인 빈스탁 벤처스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심사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SaMD, SiMD 등 의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문서 심사기준 및 복잡한 보완 단계 등 FDA 승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또 미국 FDA 510(k)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 등 기술 규제 대응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미국은 의료기기 수출의 핵심 시장이지만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KTR은 미국 FDA 지정 기관을 비롯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분야 현지 협력기관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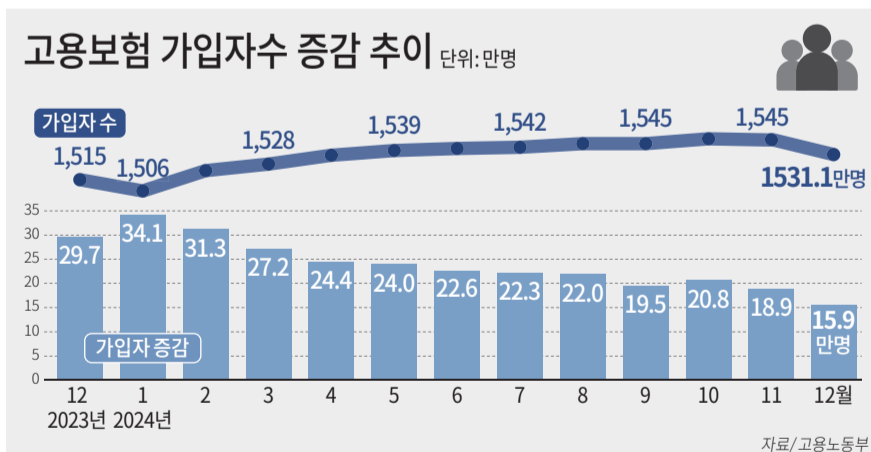
**고용부, ‘행정 통계, 노동시장 동향’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8000명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

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한 53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5.9%(445억원) 증가했다.

전경희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대 취업자가 더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온라인 공동연구 ‘하이테크 서비스’ 오픈

KIAT 기업-연구자 지속공유 촉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연구자와 기업을 연결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Hi-Tech), <https://hitech.ntb.kr>를 정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테크는 기업과 연구자의 협력과 지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이다. 만나서(Hi) 기술(Tech)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첨단 기술(High Tech)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신진연구자들이나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한 기업들이 공동 연구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서로 연구 정보와 기술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AT는 연구 현장의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하이테크의 목표를 ‘기업과 연구자의 기술협력’으로 설정하고, 하이테크에서 연구자 검색, 공동연구 제안, 온라인 세미나, 기술교류, 연구자-기업 홍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하이테크라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